

감정지리학 기반 공간 이야기 만들기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

김민성**

The Pedagogical Effects of an Emotional Geography-Based Spatial Story Making Project*

Minsung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감정지리학 관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공간분석 및 감정지도화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공간 이야기를 만들며, 공간 전략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둠을 이루어 감정지리학 시각에서 지역사회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구글어스 매쉬업, 히트맵, 정책적 제안 등을 포함한 포스터를 활용해 공간 이야기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감정지리학 프로젝트 경험 설문 분석, 반성적 성찰문의 주요 주제 추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프로젝트 경험 설문에서 참여자들은 활동의 교육적 함의와 감정지리학의 교육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반성적 성찰문 주제분석을 통해 감정지리학의 의의와 가능성 이해, 감정지도화의 효과와 의미 탐색, 데이터 가공 및 공간분석의 본질에 대한 고민, 프로젝트 개선 방안을 주요한 테마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참여자들이 반성적 성찰문에서 자주 활용한 용어를 분석하고 주제분석의 테마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감정지리학, 지리공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감정의 시각화, 지역사회 참여 등을 결합한 교육 프로젝트로 지리교육에 감정지리학 논의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한 시도로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주요어 : 감정지리학, 감정지도화, 지역사회, 공간 이야기, 지리공간 테크놀로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dagogical effects of a community participation project in which participants recognize local problems based on emotional geographies, create their own spatial stories using spatial analysis and emotional mapping, and propose spatial strategies. The participants formed a group and selected community-related research topic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al geographies and created spatial stories in the form of posters including Google Earth mash-up, heat map, and policy suggestions. To examine the pedagogical effects of the research project, a questionnaire regarding project experiences, reflective journals, and world clouds were analyzed. First, in the experience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roject and the pedagogical potential of emotional geographies positively. Second, through thematic analysis of participants' reflections, the research extracted the following themes: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and possibilities of emotional geographies, examining the effects and meaning of emotional mapping, contemplating the nature of data processing and spatial analysis, and suggesting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roject. Word cloud visualization also suppor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is research was a creative attempt in which emotional geographies, geospatial technologie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combined. This study merits inclusion in the literature in that it introduces the notion of emotional geographies into Korean geography education and provides insights into and basis for follow-up research.

Key Words : Emotional geographies, Emotional mapping, Community, Spatial story, Geospatial technologies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65063).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mskim@snu.ac.kr)

I. 서론

우리는 ‘감정적 전환(emotional turn)’의 시대를 맞고 있다(Bondi *et al.*, 2005). 감정은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정을 주관적인 반응으로 국한하여 이해하는 접근은 감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구조에 영향을 받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소와 감정의 연계를 생각하면 지리학에서 감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동일한 장소에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민족에 따라 같은 도시를 경험하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Bassett, 2004; Kwan, 2008; Kim, 2021). 다른 나라를 방문한 사람은 그곳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이나 경관에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성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Golubchikov, 2015; Simm and Marvell, 2015). 이처럼 감정과 장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감정이 단순한 내적,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맥락을 증재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 감정지리학이다(Bondi *et al.*, 2005; Kenway and Youdell, 2011).

Burlingame(in press)은 소위 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객관성의 베일 뒤에 숨어 실제 세계의 복잡한 연계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창의적, 성찰적, 비판적 참여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는 감정지리학을 연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일 또한 쉽지 않은 도전이다. 특히, 감정지리학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교수학습 맥락에서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지리학을 교육적 맥락과 연계하는 시도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Kenway and Youdell, 2011; Blazek and Stenning, in press; Burlingame, in press). 하지만 장소, 지역사회 등을 주요한 교육의 소재 및 참여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리교육에서 감정의 렌즈를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모색하는 감정지리학은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김민성, 2022). 이에 Kim(2023)은 감정지리학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공간 이야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활동이 학생들의 참여적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Kim의 연구를 확장하여 감정지리학 활용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적 함의를 탐색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감정지리학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감정지도화 및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공간 이야기를 만들며, 이를 바탕으로 공간 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감정지리학, 지리공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감정의 시각화, 지역사회 참여 등을 결합한 교육 프로젝트이다(Kim, 2023).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감정지리학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한 선도적인 시도로 후속 연구를 위한 통찰력과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실제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감정 지리학

감정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감정지리학은 감정이 단순한 내적,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맥락을 증재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Bondi *et al.*, 2005). 감정은 세계적, 국가적, 개인적 스케일에 걸쳐 역동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구조와 연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Kenway and Youdell, 2011).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기에 감정, 경험, 세계는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한다(Graybill, 2013). 따라서 감정은 세상을 인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Hay, 1998; Kwan, 2008). 감정은 사람들이 세상을 체화적, 관계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미묘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있다(Olson, 2016). 새로운 장소나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감정은 자기 성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Coghlan and Gooch, 2011). 감정의 정치학은 이성적 시민만을 전제한 논의가 최악의 경우 “미신”에 불과하고, 최상의 경우라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Di Gregorio and Merolli, 2016).

감정지리학은 어떤 장소나 지역에서 실제 살아가는 주체의 입장에 공감하고 다양성, 관용, 책임감 등의 가치에 주목하는 정의적 시민성(affective citizenship)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Wood, 2013; Molz, 2017; Wood and Black, 2018). 정의적 시민성은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성적 관점, 권력의 행정적 실행으로만 파악하려는 시도를 넘어 복잡한 이슈에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시민성 논의를 확장하려는 해방적 접근이다(Di Gregorio and Merolli, 2016; Fortier, 2016). Molz(2017)는 월드스쿨링(worldschooling)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정에 주목하며 감정지리학이 시민성 함양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러 지역의 실제 세계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월드스쿨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문화적 정체성, 타문화 존중 등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타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관을 감정의 렌즈를 통해 성찰하고, 이를 통해 책임감, 관용, 공감 등을 함양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견지에서 Wood(2013)는 시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감정지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Wood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사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차이를 존중하고 우호적인 감정적 연계를 형성하였다. 이런 과정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애착, 자부심으로 이어져 '포함'의 정체성을 증진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낙서와 같이 개선해야 할 경관은 부끄러움, 실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았고, 이는 자신과 지역사회를 분리하려는 '배제'의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즉, 일상에서의 지리적 마주침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이 시민 정체성 형성의 실제적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감정지리학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을 심도 깊게 고려하기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실제적 맥락에서 탐색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감정지리학은 세상을 탈맥락적이고 객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어떤 장소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Pánek, 2016; 2018). 이러한 접근은 기술적, 분석적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곳에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는 접근이다(Hoch, 2006; Zeile *et al.*, 2015; Shoval *et al.*, 2018). 이런 견지에서 Blazek and Stenning(*in press*)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의 일상적 감정 경험이 더 큰 맥락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성찰해보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공간에 대한 권리와 소속자', '체육관과 가정에서의 젠더 및 성의 정치(sexual politics)'와 같은 주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공간과 장소를 감정지리적 시각을 통해 의미 있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변화와 같이 과학적 이슈처럼 보이는 주제에도 감정지리학을 도입하여 공간 주체들의 입장을 실질적이고 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Ryan, 2016; Parsons, 2019).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감정지리학은 의미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2. 교육적 맥락에서의 감정지도화

감정지도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지도학적 풍경(cartographical landscape)에 시각화하여 다양한 생각, 경험, 열정 등을 표현하는 재현물이다(Perkins, 2009; 김민성, 2022). 감정지도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관적 정보, 질적 정보,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식 공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 준다(Pánek and Benediktsson, 2017). 교육을 통해 능동적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정지도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Wood, 2013; Black, 2015).

감정지도화는 감정이라는 주관적 특질을 '재현'한다는 것의 지도학적 함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re-present'의 번역인 재현은 다시(re) 제시한다(present)는 의미이다. 지도화되는 무엇인가는 그대로 지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을 통해 다시 표현된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거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태적 사상(feature)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같은 대상을 지도화할 때,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Kostelnick, 2016). 감정이란 주관적 특질을 지도에 나타내고, 그것을 의미 있게 시각화하려는 시도는 기존 지도학적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요구한다(Caquard and Griffin, 2018; Turk, 2018). 따라서 감정지리학을 통

해 다양한 공간 주체들의 감정을 탐구하고 이를 재현하는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지도학적 통찰력을 확장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감정지도화는 학습자들이 실제 세계에 참여하여 현실의 문제를 탐색하고 의미 있게 시각화하여 공간 이야기 (de Certeau, 1984)를 창출하는 학습의 경험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Pánek(2018)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Pánek은 교사, 경찰, 지역 공무원과 협력하여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등굣길과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 불편한 곳, 좋아하는 장소, 자유 시간을 보내는 곳 등을 지도에서 찾고, 각 지점에서의 경험에 대한 코멘트가 포함된 지도를 생성하였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이 일상생활공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성찰해 볼 수 있었고, 조사 결과는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경찰서는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곳에 좀 더 순찰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Active Neighbourhoods Canada Network는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하며, 시민들의 복지를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참여적 도시 계획을 위해 대중들의 도시에 대한 반응을 존중하며, 시민들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도시를 지향한다. 이에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감정을 조사하고, 이를 학생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Emotional Mapping Walk라 이름 지어진 이 활동은 우선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과 연계될 수 있는 감정 이모티콘을 선택한 후, 여러 지점의 감정을 평가하여 감정지도를 완성한다(그림 1).¹⁾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시각화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기반이 된다. 이 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자전거 타기나 걷기를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도시 계획을 위한 공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매력도 증진과 발전을 위해 어떤 곳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인지, 어떠한 장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이처럼 감정지도화는 현실 세계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공간 이야기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요컨대 감정지도화 활동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다. 유동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과 창의성을 요구하기에 공간적 재현의 의미를 지도학적으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장소, 공간,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간 이야기를 만들어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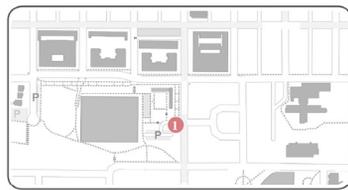


Figure 1. Select a node/place to evalu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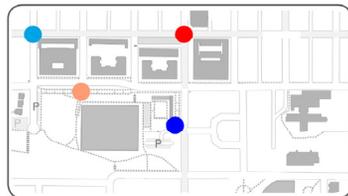


Figure 4. Present all feelings on a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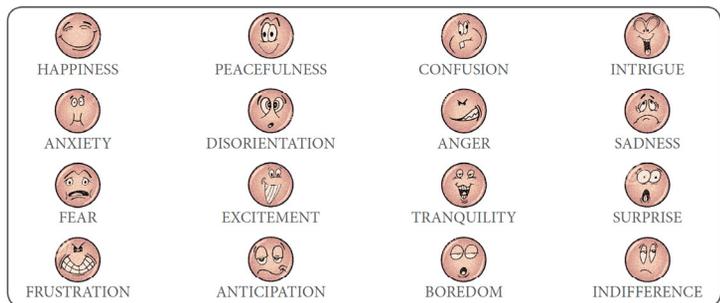


Figure 2. Circle how each of the various nodes/places in your neighbourhood make you f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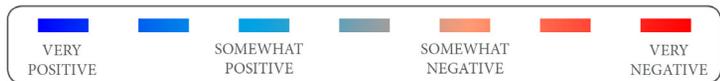


Figure 3. Rate your general feelings about the various selected places.

그림 1. Emotional Mapping Walk

* 출처 : Active Neighbourhoods Toolkit, goo.gl/guB88d

III. 연구 방법

1. 참여자 및 배경

2021년 2학기,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범대학 예비교사 1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3학년 11명, 4학년 4명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 6명, 여학생 9명이었다. 본 프로젝트는 예비교사들의 다양한 교수학습전략 학습 및 교재 개발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강좌의 활동으로 실시되었다. 예비교사인 참여자들은 감정지리학에 기반하여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공간 이야기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과제로 수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감정지리학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없었다.

2. 감정지도 기반 공간 이야기 만들기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학기 첫 수업에서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감정지도 기반 공간 이야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탐구학습과 관련된 지리교육 전략을 이해하는 학습의 일환으로 수행될 것이며, 감정지리학, 시각화, 공간 이야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지리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탐구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학기 전반부에 프로젝트의 이론적 배경과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다. 지리교육의 다양한 패러다임에 따른 탐구학습 전략을 논의하면서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 감정지리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적 반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비판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관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정지리학을 통해 능동적으로 공간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하는 참여적 시민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이러한 일련의 이론적 논의를 실제 세계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며, 연구 참여자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직접 주

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최종적으로 시각화를 통해 공간 이야기를 창출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후, 실제적인 과제 수행에 활용될 기능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였다. 감정지리학 기반 프로젝트를 처음 접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Pánek(2018)의 연구를 모델로 제시하였다. Pánek은 도시 거주민들에게 해당 도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느끼는 곳, 위험한 곳, 개선이 필요한 곳 등과 같은 탐구 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해당되는 지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포인트 데이터를 종합하여 히트맵(heat map)으로 시각화하고 패턴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Pánek이 활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의 질문을 통해 감정지리학 관점으로 탐구할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화를 위한 구체적 테크닉으로 구글어스에 텍스트, 사진, 이미지 등을 매쉬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주요 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매쉬업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한 히트맵 생성 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 Shiny를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활용해 히트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플랫폼은 구글어스에서 매쉬업한 포인트 데이터를 kml 파일로 내보내어 히트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옵션을 조정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구체적 세부 사항 소개, 그리고 실습 세션이 모두 끝난 후, 모둠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제 선정 혹은 분석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연구를 정련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였다.

모듬별 프로젝트 진행이 마무리된 학기말에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5개의 모듬은 표 1과 같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구글어스 시각화 자료, 히트맵, 정책적 제안 등을 포함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프로젝트 주제 및 접근 방법을 공유하면서 감정지리학과 지도화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전략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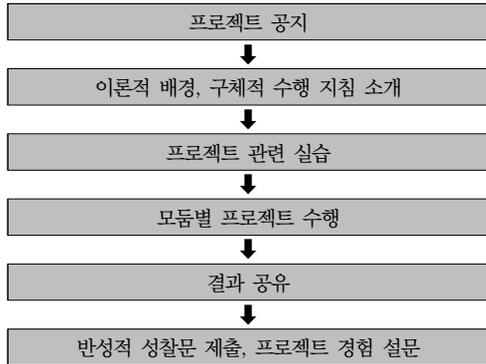


그림 2. 프로젝트 수행 흐름

세션 후,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모듈별로 프로젝트 결과를 수정하고 최종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결과물 수정과 더불어 프로젝트 수행의 의미 및 장점,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제언 등 경험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한 반성적 성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 결과물과 반성적 성찰문을 제출하고, 감정지리학 프로젝트 경험 설문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방법

1) 프로젝트 경험 설문

감정지리학 프로젝트 수행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참여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활동의 흥미, 교육적 효과, 감정지리학의 의미 등과 관련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참여자들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기반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참여

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2) 반성적 성찰문 주제분석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반성적 성찰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반성적 성찰문에는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프로젝트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반성적 성찰문의 텍스트를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인지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분석법이다(Braun and Clarke, 2006; Terry *et al.*, 2017). 우선, 교과교육 연구자, 교육학 연구자 두 명이 독립적으로 반복적 텍스트 읽기를 통해 반성적 성찰문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 및 관련 발췌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두 명의 분석을 비교하면서 토론을 통해 차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주제를 최종화하였다.

3) 반성적 성찰문 워드 클라우드

반성적 성찰문 텍스트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시각화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를 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초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Fouberg, 2013; Philip, 2020).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전체적,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텍스트를 워드 클라우드로 변환해주는 R 코드를 생성하여 성찰문을 시각화하였다.

표 1. 프로젝트 주제 및 내용

모듈	주제	내용
1	환대와 배제의 공간, 용산	용산구를 답사하면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을 내러티브로 표현하고 지도화
2	삼성동, 대학동 일대의 화재 취약지점	불안함, 두려움의 대상으로 화재에 주목하고 삼성동, 대학동 일대에서 화재에 취약한 지점과 소화기 및 소방서의 가용성 분석
3	종로구를 중심으로 본 공간의 이격성	노인과 청년이 서로 다르게 느끼는 공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배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 제시
4	서울대 캠퍼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서울대에서 행복한 장소를 찾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는 탐방길 만들기
5	당신을 불편하게 한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대학동에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소리를 찾아 지도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IV. 연구 결과

1. 프로젝트 경험 설문 분석

본 프로젝트는 감정지리학 관점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고 지도화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는 탐구적 지리학습 활동이었다. 본 프로젝트의 교육적 함의 및 감정지리학의 가능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4점을 넘어 참여자들이 감정지도 기반 공간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은 크게 프로젝트의 일반적 교육적 함의와 관련된 문항 5개(문항 1~문항 5), 감정지리학의 교육적 가능성에 관한 문항 5개(문항 6~문항 10)로 이루어져 있다.

본 프로젝트의 교육적 함의에 있어 참여자들은 감정지리학 활동이 지리적 기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반응을 보였다(문항 4). 전체 문항에서 이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4.6점)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실제 탐구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구글어스 매쉬업, 히트맵 생성, 정책적 제안을 담은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에 임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수행이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다(문항 1). 흥미와 같은 정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인지적 학습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본 활동이 지리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는지를 묻는 문항 3에 대한 반응의 평균은 4.1점으로 참여자들이 감정지리학 활동이 지리적 개념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은 활동의 수행을 위해 특정 개념을 소개하거나 그것의 학습에 강요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추후 유사한 활동을 수행한다면 특정 개념에 집중하게 하거나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지리 개념을 좀 더 명시적으로 조사,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활동을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으며(문항 2),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문항 5)을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였다.

본 프로젝트 수행은 감정지리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감정지리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였으며(문항 6), 감정지리학을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문항 7). 이러한 반응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감정지리학 및 감정지도화라는 관점을 접하고, 그것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각은 감정지리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관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다(문항 8). 이처럼 감정지리학이 효과적이고, 새롭

표 2. 감정지리학 프로젝트 경험 설문 결과

문항	항목	응답 분포					평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활동은 흥미로웠다.	-	-	1(7%)	8(53%)	6(40%)	4.3
2	이 활동은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	-	-	7(47%)	8(53%)	4.5
3	이 활동은 지리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	-	3(20%)	7(47%)	5(33%)	4.1
4	이 활동은 지리적 기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	-	-	6(40%)	9(60%)	4.6
5	이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이 지속되면 좋겠다.	-	-	-	7(47%)	8(53%)	4.5
6	감정지리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	1(7%)	5(33%)	9(60%)	4.5
7	감정지리학을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	-	2(13%)	4(27%)	9(60%)	4.5
8	감정지리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관점을 제공한다.	-	-	1(7%)	6(40%)	8(53%)	4.5
9	감정지리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	1(7%)	8(53%)	6(40%)	4.3
10	감정지리학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행되면 좋겠다.	-	-	1(7%)	6(40%)	8(53%)	4.5

고, 창의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지한 참여자들은 감정지리학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문항 9). 마지막으로, 감정지리학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감정지리학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문항 10). 이러한 의견은 추후 감정지리학 프로젝트를 다양한 맥락으로 확장할 근거를 제공한다.

2. 반성적 성찰문 주제분석

참여자들의 활동 수행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앞서 제시된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었다. 주제분석법을 통해 추출된 주요 주제 및 관련 발췌문을 제시한다.

1) 감정지리학의 의의와 가능성 이해

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감정지리학의 의미를 탐구하고 감정지리학의 다양한 의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감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감정이 어떻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감정지리학 관점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세상의 여러 공간 좌표가 중립적인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얽혀 생동하는 유기체임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고 인간의 삶이 감정을 통해 구성되고 향유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Anderson and Smith, 2001). 다음 발췌문은 이러한 측면과 연계되는 참여자 성찰 사례이다.

감정지리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 및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일반적인 지리적 관점이 아닌, 장소와 결부된 감정을 테마로 사회 현상을 바라봤을 때, 더욱 차별화되고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각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감정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감정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러한 감정에 기반하여 문제에 접근했을 때, 감정이 배제될 때에는 포착할 수 없었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좌표로 여겨졌던 수많은 위치들에 우리들의 감정이 추가되면

서 더욱 의미 있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저 이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인간주의 지리학, 감정지리학 등의 학문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G10²⁾).

감정지리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관점이 된다는 사실은 지리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감정지리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공간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었다.

감정지리학 프로젝트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언급한 내 개인적인 깨달음도 있지만, '지리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편으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주제의 공간 이야기나 지역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G5).

2) 감정지도화의 효과와 의미 탐색

참여자들은 감정지리학을 통해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느낀 주제들을 지도화함으로써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는 대상을 사회적, 공간적 주제와 연계시켜 시각화함으로써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이나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음의 두 발췌문은 노인 소외 문제, 지역사회의 소외 문제를 감정지도화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경험을 보고한다.

감정지리학 기반의 공간지도 만들기는 인식하지 못했던 일을 가시화하여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존재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내가 주로 놀러 다니는 공간에 노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G1).

주관적인 ‘감정’을 설문과 답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현상으로 정의내릴 수 있었으며,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문제의식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를 지도에 매쉬업하고 열지도로 나타내는 공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부근에 어떠한 소음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소음이 퍼져있고 특정 부근에 몰려있는 모습을 ‘지도화’하여 시각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었다. 이는 또한 정책 제언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전광판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논리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G7).

감정을 지도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은 수준에서 고민한 참여자도 있었다. 사실 감정이라는 주관적인 특질을 지도화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의 지도화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과의 연계성 속에서 다음 참여자는 감정을 지도화하면 과연 그것이 본래의 감정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지, 감정지도화에서 지도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간, 감정지리학, 지도화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를 심도 깊게 성찰하려는 시도였다. 그림 3은 이 참여자가 속한 모음이 답사를 통한 장소 경험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지도화한 것이다.

감정을 지도에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감정을 데이터화 해서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과연 ‘감정’로서의 생생한 지위를 가질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로 주제를 선정할 때 우리 조원들의 감정을 대상으로 해서 답사를 가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간을 여러 배경을 가진 인물이 경험해보고, 그 감정을 답사 과정에서 나눈다면 감정을 지도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의 생생한 공간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략)... 나는 ‘감정’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감정지도’를 만들 때, 엄밀히 말하면 그 지도에는 우리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spot으로서 지도 위에 재현된다는 것이다(G2).

3) 데이터 가공 및 공간분석의 본질에 대한 고민

참여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및 표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과 연계된 지점들의 포인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림 3. 답사를 통한 장소에 대한 감정 성찰 및 시각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들을 지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인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과학적인 분석, 연구의 일부 분인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 및 분석 능력 함양 등을 위해 의미 있는 경험이다(Kim and Bednarz, 2013; 김민성, 2016). 다음 발췌문은 포인터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과정과 관련된 참여자 성찰이다.

분명히 소음을 확인하였지만, 아쉬운 점은 오토바이 소음은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구글어스에 포인트를 찍어 매쉬업을 하는 연구 특성에 따라 직접 소음을 느낀 지점을 기록하였지만, 좀 더 정교하고 신뢰성 있게 연구를 진행하려면 다양한 장소에서 특정 길이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의 횟수를 기록하는 등 더 고차적인 방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가 되면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의 빈도를 측정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보고 싶다(G13).

이 연구 프로젝트는 자료를 수집한 장소들을 포인트로 데이터화 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한 감정의 발생 지점들을 히트맵으로 표현하여 밀집도를 파악하는 절차를 포함하였다(그림 4). 이는 질적인 측면의 감정 데이터를 히트맵으로 양적 시각화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질적 데이터와 양적 표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 성찰문은 질적 데이터의 양적 지도화와 관련된 고민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다소 생소한 연구 주제이다 보니, '감정'이라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연구 대상을, 밀집도라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함의가 큰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



그림 4. 소음을 주제로 한 모듈의 공간 이야기 포스터³⁾

였다. 따라서 우리 조 내부에서는 여러 번의 주제 수정이 있었다. 많은 고민과 회의를 하고, 여러 번 지도를 들여다 보고, 다수의 관련 연구를 찾아봄으로써 조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G10).

4) 프로젝트 개선 방안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활동 디자인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모둠별로 다양한 감정을 각자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공통된 감정 언어를 설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감정지리학의 내러티브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연구로 도입하는 방법 등 프로젝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후속 활동을 실행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제안은 모든 조의 감정을 특정한 말이나 종류로 통일하고, 서로 다른 장소를 대상으로 탐구하는 방식이다. 감정을 통일시켜두고 장소를 다르게 둔 뒤 감정의 주체를 탐구자인 조원으로 한정시킨다면 훨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감정이 지도 위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예비교사로서도, 이러한 감정지리 활동은 교사 자신의 감정을 기술하고 이를 학생과 공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G2).

감정지리학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감정지리학의 가장 큰 특징인 '내러티브'를 일부 사람들의 사연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끼리의 논의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닌, 직접 필드에서 여러 사람을 면대면 하면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G3).

3. 반성적 성찰문 워드 클라우드 분석

참여자들의 반성적 성찰문 텍스트를 종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그림 5). 참여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드 클라우드에 등장하는 용어에는 작은 따옴표를 붙였다.

첫째, 감정지리학을 기반으로 한 지도화 프로젝트인 만큼 '감정지리학', '감정', '감정지도', '지도', '프로젝트'와 같은 용어가 빈번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본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공간 문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간', '지역', '사회', '지역사회', '참여', '연구'와 같은 단어도 자주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신들의 활동 결과를 지도화하면서 감정지리학의 의미와 '수업' 활용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별 주제 및 장소와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활용되었다. '장소감', '행복감', '노인', '청년', '소리' 등은 각 모둠의 연구 주제를 반영하는 용어들이다. '서울대학교', '대학동', '삼성동'과 같은 용어는 프로젝트가 수행된 장소와 관련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 세계와 관련된 주제를 구체적 장소에서 '수행'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시도는 프



그림 5. 반성적 성찰문 워드 클라우드

로젝트 주제 '선정' 및 해결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간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조사 방법과 관련된 용어의 빈번한 사용도 눈에 띈다. '설문', '관점', '수행', '답사' 등의 용어는 연구 방법 및 이의 실제적 실행과 관련된 맥락에서 활용되었다. '히트맵'이라는 용어는 본 프로젝트가 히트맵을 생성하도록 했기에 히트맵의 패턴분석 및 해석, 나아가 연구방법론으로서 히트맵 활용과 관련된 성찰 속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성찰은 감정이라는 질적 데이터를 양적 지도화하면서 데이터 가공, 공간분석의 본질 및 한계 등을 생각하는 과정과도 관련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이라는 용어는 프로젝트 수행의 한계, 개선사항 도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한 감정지리학이라는 접근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했을 것이고 이는 때때로 좌절로 이어지기도 했다(Kim, 2023).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제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근거가 되었고, 능동적 학습자가 되는 기회로 작동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감정지리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감정지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간 이야기를 만들며, 공간 전략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지리학 시각에서의 공간 인식, 지리공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감정의 시각화, 지역사회 참여 등을 결합한 교육 프로젝트 기획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둠을 이루어 감정지리학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구글어스 매쉬업, 히트맵, 정책적 제안 등을 포함한 포스터를 활용해 공간 이야기를 생성하였다.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는 환대와 배제의 공간으로서 용산, 삼성동과 대학동의 화재 취약지점, 종로구를 중심으로 본 공간의 이격성, 서울대 캠퍼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대학동에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였다.

연구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감정지리학 프로젝트 경험 설문 분석, 반성적 성찰문의 주요 주제 추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활동 마무리 후 진행된 감정지리학 경험 설문을 통해 본 프로젝트의 교육적 함의 및 교육적 활동으로서 감정지리학의 가능성에 대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참여자들은 본 연구 활동에 흥미롭게 참여하였으며 수행한 활동이 지리적 개념 이해 및 기능 함양에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감정지리학이 세상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감정지리학 기반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교육 활동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참여자들의 활동 수행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문을 주제분석법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함의를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고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추출된 주제는 감정지리학의 의의와 가능성 이해, 감정지도화의 효과와 의미 탐색, 데이터 가공 및 공간분석의 본질에 대한 고민, 프로젝트 개선 방안이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본 연구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다시 한번 지지해 주었다. 나아가 참여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교육 전략이나 프로젝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더욱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참여자들이 반성적 성찰문에서 자주 활용한 용어를 분석하여 주제분석의 테마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 감정지도, 감정지리학학과 같은 용어의 빈번한 사용은 감정지리학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또한 조별 주제 및 장소와 관련된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고, 조사 방법과 관련된 용어도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감정지리학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하고 이를 지역사회 참여 활동 및 연구 수행의 맥락으로 의미 깊게 적용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감정지리학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감정지리학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안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공감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위 객관적, 과학적

시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감정지리학 접근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러 분야에서 감정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학술 논의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감정지리학 교육 프로젝트의 함의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비재현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에 주목한다. 비재현 이론은 재현주의 경관 이론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로 시각 중심으로 경관을 이해하는 접근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감정, 수행 등을 강조한다(Thrift, 2008; 오동훈, 2022). 연구자들은 비재현 이론 논의를 지리교육 맥락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시작했고, 범영우(2022)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범영우는 현재 지리교육에서 세계의 다양한 경관을 이성적으로만 다루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 문제나 지정학적 분쟁 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위험, 고통, 비극과 같은 감정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계의 최신 논의들과 연계하면서 감정지리학 프로젝트의 학술적 함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정지리학에 기반한 연구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생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정지리학 프로젝트를 처음 수행하는 학생들에게는 감정지리학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Kim, 2023).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ánek(2018)의 연구가 주요한 모델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어떤 감정지리학 사례가 학생 활동에 효과적으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주제의 연구들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민들이 선호하는 자전거 경로를 위해 다양한 지점에서의 감정적 반응을 조사한 Pánek and Benediktsson(2017)의 연구,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서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장소들을 조사하고 비교한 Poplin(2017)의 연구 등과 같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학습자들이 감정지리학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감정지리학에 기반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경험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감정지리학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의 지평은 매우 협소하다. 본 연구는 감정지리학 프로젝트의 선도적인 실행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생산적인 후속 프로젝트를 위해 감정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 체계적인 자료 수집 전략 수립과 같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 경험의 노하우가 공유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감정지리학 기반 교육 프로젝트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註

- 1) Emotional Mapping Walk 활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1단계: 평가하기 위한 지점을 선택한다(지도 제공).
 - 2단계: 선택한 지점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이모티콘을 선택한다(감정 이모티콘 제공).
 - 3단계: 선택한 지점에서 느끼는 감정을 색으로 표시한다(매우 부정적(붉은색)-약간 부정적-약간 긍정적-매우 긍정적(푸른색)).
 - 4단계: 다양한 지점을 선택하여 지도에 감정을 표현한다.
- 2) G10은 참여자에게 부여된 임의의 표기이다. 이후 다른 발췌문에도 이러한 방식의 정보가 제공되어 제시되는 내용이 동일한 참여자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포스터의 상단에서 히트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듬은 감정지리학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하는 정책도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소음이 심하면 아이가 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롭게 잠자는 아이가 나타나는 전광판 화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Kim (2023)을 참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성, 2016, “로우테크 원격탐사 활동의 교육적 효과: 비판적 공간사고력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115-130.
- 김민성, 2022, “감정지리학의 교육적 활용: 캠퍼스 감정지도화 활동” 교사교육연구, 61(4), 421-434.
- 범영우, 2022, “비재현적 경관 인식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 한국지리학회지, 11(4), 431-447.
- 오동훈, 2022, “재현과 비재현의 스펙트럼: 광화문 네거리의 도시 상징경관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K. and Smith, S.J., 2001, Editorial: Emotional geograph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1), 7-10.
- Bassett, K., 2004, Walking as an aesthetic practice and a critical tool: Some psychogeographic experiment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8(3), 397-410.
- Black, R., 2015, Between policy and a hard pedagogical place: The emotional geographies of teaching for citizenship in low socio-economic schools, *Pedagogy, Culture & Society*, 23(3), 369-388.
- Blazek, M. and Stenning, A., in press, Neoliberal subjectivities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motional geographi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 Bondi, L., Davidson, J., and Smith, M., 2005, Introduction: Geography's "emotional turn", in Davidson, J., Bondi, L., and Smith, M.(eds.), *Emotional Geographies*, Aldershot, UK: Ashgate, 1-18.
- Braun, V. and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urlingame, K., in press, Learning by feeling: Excursion into the affective landscap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 Coghlan, A. and Gooch, M., 2011, Applying a transformative learning framework to volunteer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6), 713-728.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i Gregorio, M. and Merolli, J.L., 2016, Introduction: Affective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control, resistance, *Citizenship Studies*, 20(8), 933-942.
- Fortier, A.M., 2016, Afterword: Acts of affective citizenship?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Citizenship Studies*, 20(8), 1038-1044.
- Fouberg, E.H., 2013, “The world is no longer flat to me”: Student perceptions of threshold concepts in world regional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1), 65-75.
- Graybill, J.K., 2013, Mapping an emotional topography of an ecological homeland: The case of Sakhalin Island, Russia, *Emotion, Space and Society*, 8, 39-50.
- Golubchikov, O., 2015, Negotiating critical geographies through a “feel-trip”: Experiential, affective and critical learning in engaged fieldw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1), 143-157.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5-29.
- Hoch, C., 2006, Emotions and planning, *Planning Theory & Practice*, 7(4), 367-382.
- Kenway, J. and Youdell, D., 2011, The emotional geographies of education: Beginning a conversation, *Emotion, Space and Society*, 4(3), 131-136.
- Kim, M., 2021, The pedagogical effects of psychogeographic urban exploration and mapping, *Geography*, 106(2), 92-100.
- Kim, M., 2023, Promoting civic engagement competence through emotional geography-based spatial story making in community participation projects, *Journal of Geography*, 122(2), 43-53.
- Kim, M. and Bednarz, R., 2013, Development of critical spatial thinking through GIS learning,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3), 350-366.
- Kostelnick, C., 2016, The re-emergence of emotional appeals in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Technical Communication*, 63(2), 116-135.
- Kwan, M.-P., 2008, From oral histories to visual narratives: Re-presenting the post-September 11 experiences of the Muslim women in the USA, *Social & Cultural Geography*, 9(6), 653-669.
- Molz, J.G., 2017, Learning to feel global: Exploring the

- emotional geographies of worldschooling, *Emotion, Space and Society*, 23, 16-25.
- Olson, E., 2016, Geography and ethics II: Emotions and mora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6), 830-838.
- Pánek, J., 2016, From mental maps to GeoParticipation, *The Cartographic Journal*, 53(4), 300-307.
- Pánek, J., 2018, Emotional maps: Participatory crowdsourcing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ir urban environment, *Cartographic Perspectives*. 91, 17-29.
- Pánek, J. and Benediktsson, K., 2017, Emotional mapping and its participatory potential: Opinions about cycling conditions in Reykjavík, Iceland, *Cities*, 61, 65-73.
- Parsons, L., 2019, Structuring the emotional landscape of climate change migration: Towards climate mobilities i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3(4), 670-690.
- Perkins, C., 2009, Performative and embodied mapping, in Kitchin, R. and Thrift, N.(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London: Elsevier, 126-132.
- Philip, R.K., 2020, Word cloud analysis and single word summarisation as a new paediatric educational tool: Results of a neonatal application,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56(6), 873-877.
- Poplin, A., 2017, Cartographies of fuzziness: Mapping places and emotions, *The Cartographic Journal*, 54(4), 291-300.
- Ryan, K., 2016, Incorporating emotional geography into climate change research: A case study in Londonderry, Vermont, USA, *Emotion, Space and Society*, 19, 5-12.
- Shoval, N., Schvimer, Y., and Tamir, M., 2018, Tracking technologies and urban analysis: Adding the emotional dimension, *Cities*, 72, 34-42.
- Simm, D. and Marvell, A., 2015, Gaining a "sense of place": Students' affective experiences of place leading to transformative learning on international fieldw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4), 595-616.
- Terry, G., Hayfield, N., Clarke, V., and Braun, V., 2017, Thematic analysis, in Willig, C. and Rogers, W. S.(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nd ed., London: SAGE, 17-37.
- Thrift, N.,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London: Routledge.
- Wood, B.E., 2013, Young people's emotional geographies of citizenship participation: Spatial and relational insights, *Emotion, Space and Society*, 9, 50-58.
- Wood, B.E. and Black, R., 2018, Spatial, relational and affective understandings of citizenship and belonging for young people today: Towards a new conceptual framework, in Halse, C.(ed.), *Interrogating Belonging for Young People in School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165-185.
- Zeile, P., Resch, B., Exner, J., and Sagl, G., 2015, Urban emotions: Benefits and risks in using human sensory assessment for the extraction of contextual emotion information in urban planning, in Geertman, S., Ferreira, J. Jr., Goodspeed, R., and Stillwell, J.(eds.), *Planning Support Systems and Smart Cities*, Cham, Switzerland: Springer, 209-225.
- Active Neighbourhoods Toolkit, goo.gl/guB88d
- 교신 : 김민성,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geomskim@snu.ac.kr)
- Correspondence: Minsung Kim,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mskim@snu.ac.kr)
- 투고접수일: 2023년 5월 23일
심사완료일: 2023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14일

